36. '프리우스' 총지휘자가 말하는 '프리우스 킬러' 아이오닉

토요타의 세계 1위 하이브리드차 전용 모델 '프리우스' 개발을 진두지휘한 책임자들은 후발주자인 현대차 아이오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본 현지에서 만난 토요타의 핵심 연구진들은 직접 자신들을 겨냥해 '프리우스 킬러'란 별칭을 가진 아이오닉의 출현에 관심을 드러내며 말문을 열었다.  
  
◇"아이오닉, 1모터 2클러치 인상적..중량 높아 궁금"=먼저 지난해 완전변경돼 출시된 4세대 프리우스의 총괄 책임자인 토요시마 코지 수석 엔지니어는 지난 9일 일본 나고야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올해 아이오닉이 등장하면서 앞으로 경쟁을 통해 함께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키워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선두 주자의 여유도 묻어나왔다.  
  
그러면서 올 초 아이오닉 출시에 맞춰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는 사실도 밝혔다. 토요시마 수석은 "통상 눈에 띄는 신차가 나오면 벤치마킹이나 조사·분석 등을 위해 TF를 구성하곤 한다"면서 "현재 아이오닉 TF가 절반까지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기아차 '니로'와 관련한 TF는 갖추지 않았다.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시스템 개발을 맡은 후시키 슌스케 프로젝트 매니저도 "토요타가 이미 아이오닉 몇 대를 구매해 조사했다"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 확인해봤는데 하나의 모터에 두 개 클러치를 가진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이오닉이 고속에서 효율이 높은 점은 배울만하다"며 "연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다만 후시키 매니저는 "아이오닉이 어떤 자동차를 지향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차체 중량이 약간 높아진 것 같다"며 "그 이유에 대해 우리도 흥미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의 열효율이 40%에 달한다고 밝힌데 대해선 "사실 그에 대해 잘 모르고 답변하기도 힘들다"며 "우리 뿐 아니라 대다수 차 기업들이 디젤을 뛰어넘는 열효율을 가진 가솔린 엔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3년 뒤 PHEV 대세 기울 것‥주행성능에 비중=프리우스와 아이오닉은 올 하반기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북미에서도 정면 격돌할 예정이다.   
  
토요시마 수석은 "가솔린이 강세였던 북미는 아직 하이브리드차가 성장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시장"이라며 "EV(순수전기차)가 강세인 중국에도 올해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으로 현지에 배터리 자회사(PEVE)가 공장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 년 정도 쉬었다가 5세대 프리우스를 준비할 것"이라고 농을 던진 토요시마 수석은 "프리우스라는 브랜드가 꼭 하이브리드만 고집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며 "앞으로 더 많은 전력을 낼 수 있는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로 대세가 이동할 것으로 보며 2~3년 내에는 가시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요타는 주행거리의 한계를 가진 EV 개발보다는 PHEV로 미국 테슬라 등 '범 친환경차 라이벌'에도 맞대응할 것이란 뜻도 내비쳤다.  
  
대신 스무살(1세대 1997년 출시)을 맞아 '캐시카우'로 성장한 하이브리드(프리우스)에 집중하면서 미래 신성장 동력인 수소차(미라이)와 점차 균형을 이뤄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토요시마 수석은 "수소차는 아직 수소 확보와 인프라 부족으로 쉽지 않은 여건"이라며 "50년에서 100년 뒤까지도 내다보며 장기적으로 '수소 사회'를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앞으로의 개발 방향성과 관련해 "밖에서 프리우스를 볼 때 친환경성과 연비에 주로 초점을 두는데, 4세대 모델부터 토요타의 신념인 'TNGA'(토요타 글로벌 뉴 아키텍처) 설계에 따라 조종 성능과 승차감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감성 품질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향후 완전변경되는 모든 토요타 신차에는 저중심 플랫폼인 TNGA가 적용된다.  
  
토요타는 모터스포츠팀 '가주 레이싱(GAZOO Racing)'을 운영해 2012년부터 프랑스 '르망24'시로 유명한 세계내구선수권(WEC)에 하이브리드 경주차를 출전시켰으며, 이 대회를 통해 얻은 기술과 노하우를 프리우스 등 양산형 차량에 접목시키고 있기도 하다.